

2024 BIO USA

삼성바이오, 신규 CDO 플랫폼 '에스-텐시파이' 공개

(위탁개발)

‘엔 마이너스 원 퍼퓨전’ 범위 확장
고농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 지원
“고객맞춤 기술·서비스 고도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맞춤’ 전략으로 신규 위탁개발(CDO)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출시하며 CDO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일(현지시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신규 CDO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를 첫 공개했다. 에스-텐시파이는 첨단 배양기술을 적용해 고농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 위탁생산(CMO)에



에스-텐시파이(S-Tensify) 프로모션 이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용했던 ‘N-1 퍼퓨전’ 기술의 범위를 확장시켜 CDO에 적용한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를 론칭했다.

에스-텐시파이에 적용된 N-1 퍼

퓨전 기술을 통해 최종세포배양 직전 단계(N-1)의 접종세포농도를 평균 30배까지 높여 최종세포배양단계(N)에 접종 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

다. N-1 퍼퓨전은 N-1 단계에서 관류식 배양을 통해 세포 배양과 노폐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해 고농도의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기술을 토대로 배양기 내 쌓여 있는 노폐물로 인해 세포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없었던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스-텐시파이를 통해 전통 배양방식인 유가 배양 방식부터 생산성이 향상된 고농도 배양 방식까지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CD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뿐 아니라 신규 서비스 브랜딩을 출시해 적극적인 CDO 마케팅 활동에도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에서 CDO 서비스인 ‘셀렉테일러’를 선보였다. 셀렉테일러는 고객사만의 물질 특성 및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개발 맞춤형 CMC(화학·제조·제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8월 출시했던 ‘맞춤형 개발 솔루션’을 새롭게 브랜딩해 출시했다.

민호성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개발센터장(부사장)은 “고객사 원하는 배양 방식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사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더욱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SK바이오사, 공동 홍보관 운영... 글로벌 사업 본격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기업 파트너링 적극 추진
“새로운 시장 진출 계기 마련할 것”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사업 확대의 기회를 모색한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행사에 홍보관을 공동으로 마련,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에 나섰다. SK 바이오 계열사들이 국제 규모의 바이오박람회 등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SK그룹의 바이오 역량을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미국 현지 자회사 임원이 직접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4일에는 글로벌 임상개발 담당 임원이 ‘임상부터 미국 직판까지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5일에는 지난 해

인수한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임원들이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 관련 ‘분자접착제(MG) 발굴 혁신 플랫폼인 MOPEDTM를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가속화로 창출된 현금 흐름과 마케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규 모달리티(Modality) 기술 플랫폼과 향암으로 영역을 확장해 ‘빅

바이오텍’을 향한 약진을 본격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SK의 바이오 사업을 알리고, 파트너십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역할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BIO USA를 통해 그간 파트너십을 맺었던 기업 및 기관들과 관계를 더욱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 SK바이오사이언스 부스에 현장 관람객들이 모여 있다.

공고히 하고 신규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기회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쩍 높아진 SK 바이오 사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노사, 임단협 무교섭 타결

22년 연속 무쟁의 기록 이어가

생활부터 기업 애경산업과 노동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애경산업 노사는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김상준 대표이사와 김혁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단협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임단협 협약은 노사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뜻을 모으고, 노조가 임금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며 무교섭으로 타결됐다. 이는 노사가 경영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상호 간 신뢰를 공고히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한편 2003년 이후 22년 연속 무쟁의 기록도 이어가게 됐다.

애경산업 노사는 협약식에서 임금 외 ▲직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 ▲노사 간 소통 지속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등을 합의하며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애경산업과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애경산업 본사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하는 ‘2024 임단협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이사(오른쪽)와 김혁중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혁중 노조위원장은 “애경산업 노조는 대립이 아닌 회사의 발전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무교섭 위임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며 “평소 회사와 노조가 당면한 쟁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대응적 차원의 무교섭 위임 결정을 해준 노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적 노사관계 지속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옵리클로’ 3상 데이터 공개

(알러지성 천식·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유효성·안전성 확인... 유럽 공략 박차

셀트리온은 ‘2024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EAACI)’에서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옵리클로(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회에서 CT-P39 300mg과 오리지널 의약품 300mg을 투약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409명의 글로벌 임상 3상 24주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을 통해 확인한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옵리클로의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옵리클로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출시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빨리 허가 받은 플레이어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 무버’ 지위를 획득,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브이올렛’ 자문의 13인 위촉

(국산1호 지방분해 주사제)

대웅제약은 지난달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4년 첫 ‘다바(DAVA)’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최고 미용성형 권위자로 구성된 브이올렛 홍보대사 겸 자문의 13인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브이올렛은 글로벌 제약사의 철수로 침체 상태였던 국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국산 1호 지

방분해 주사제다. 지난 2021년 톡밀 지방분해 주사제로 품목허가를 받고, 출시 후 연평균 165% 성장률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브이올렛 홍보대사 겸 자문의 ‘다바(DAVA)’는 지난해 8명으로 시작해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이올렛의 다양한 활용법과 시술법을 전파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롯데시네마 ‘라이브 시네마’ 론칭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브랜드 ‘제로월드’와 손잡고 몰입형 체험 공간 ‘라이브 시네마’를 신규 론칭한다.

롯데시네마는 기존 상영관을 활용한 전시 ‘랜덤스퀘어’에 이어 오감으로 콘텐츠를 경험하는 공간 ‘라이브 시네마’를 오는 15일 롯데시네마 흥대입구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라이브 시네마’는 ‘라이브(LIVE)’와 영화관을 뜻하는 ‘시네마(CINEMA)’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화관’을 의미한다.

해당 공간은 스토리의 주인공인 ‘관객’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썬스틸러(연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롤플레잉 체험으로 꾸며진다. 기존 방탈출의 단순 자물쇠 풀이에 서 벗어나 스토리 주인공으로서 썬스틸러와 협동해 각 공간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한다.

특히 영화관이라는 장소의 특색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구성한 공간은 관객이 직접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압도적인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